

#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갯벌의 생태지형학\*

장창영(전북대)

## < 목 차 >

- |                 |                    |
|-----------------|--------------------|
| 1. 들어가는 말       | 4. 갯벌, 보전과 개발의 양가성 |
| 2. 생명의 풍요로움 재발견 | 5. 나오는 말           |
| 3. 상생과 치유의 교호작용 |                    |

## 1. 들어가는 말

이 연구는 한국 현대시에 형상화된 갯벌의 주요 양태를 고찰함으로써 갯벌에 대한 시인들의 시의식과 시적 형상화 방식, 그리고 이들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작업을 토대로 한국 현대시사에서 갯벌의 위상과 가치를 점검하고,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예전과 달리, 오늘날 우리의 삶은 대형 쓰나미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 등과 같은 각종 천재지변에 노출되어 있다. 그 직·간접적인 배경에는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자연 파괴와 인간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 문제가 우리 삶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면서 최근에는 자연과학과 환경영향평가 부분 등에서 자연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20736)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환경 오염에 따른 실태와 폐해들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열악한 생태계 실상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논의의 전면에서 등장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변화와 인식 전환과 달리 우리의 시문학연구에서는 자연 생태계의 주요한 영역에 해당하는 갯벌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연과학 영역이나 생물학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문학 측면에서 갯벌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도서문화의 연장 선상에서 살펴본 논의<sup>1)</sup>와 생태문학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룬 정도<sup>2)</sup>가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내포제(內浦制) 소리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방안을 다룬 정미영<sup>3)</sup>, 갯벌과 관련한 구비전승과 민속문화를 다룬 연구로는 갯벌 지역의 민속 고찰을 시도한 나승만<sup>4)</sup>,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의 도깨비신앙을 고찰한 김종대<sup>5)</sup>, 갯벌을 둘러싼 구비전승물을 다룬 홍순일<sup>6)</sup>, 한국의 생태소설을 연구한 임영천<sup>7)</sup>, 생태시에 주목한 박정근<sup>8)</sup>, 함민복의 시세계를 다룬 노용무<sup>9)</sup>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대부분 포괄적인 논의에 해당하며 본격적으로 갯벌을 다룬 문학

- 
- 1) 홍순일, 『서해바다 황금갯벌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 『도서문화』 30집,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7.12.
  - 2) 김옥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 3) 정미영, 『내포제 소리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방안』, 『한국학연구』 39집,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 4) 나승만, 『증도 갯벌어로의 민속적 고찰』, 『도서문화』 28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6.
  - 5) 김종대, 『서해안과 남해안지방 도깨비신앙의 전승양상과 그 변화』, 『한국민속학』 56집, 한국민속학회, 2012.11.
  - 6) 홍순일, 『서해바다 황금갯벌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 『도서문화』 30집,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7.12.
  - 7) 임영천, 『한국 생태소설 연구-조현용의 한 중편소설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18집, 한국비평문학회, 2004.6.
  - 8) 박정근, 『독일 생태 시인과 박영근 생태시 비교』, 『한민족문화연구』 35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 9) 노용무, 『뿔의 상상력과 근대성에 대한 사유-함민복의 『뿔에 밑뚝 박는 법』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연구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갯벌은 바닷물과 육지 사이의 조간대(潮間帶)로서 바다, 섬, 육지 사이에 분포하면서 이들을 지리적, 생태학적으로 연결시키고 인간의 삶을 부양한다.<sup>10)</sup> 갯벌은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독특한 공간이다. 갯벌이 아무나 쉽게 접하기 어렵고, 삶의 터전으로 뿌리내리기도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만약 평생을 산이나 들과 같은 육지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갯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 지리적인 특성상 바다에 인접하지 않는 한 갯벌을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해안이 아닌 서해안과 남해안에 갯벌이 집중·발달하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갯벌은 바다를 배경으로 삶을 영위하는 인간들의 고유한 영역에 해당한다. 바다와 다른 지역에 사는 인간들에게 갯벌이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바다의 연장 선상에 위치하는 대상일 뿐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갯벌은 바다와 육지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경계지대에 위치한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갯벌은 중간지대라기보다는 바다와 더 긴밀성을 갖는 공간이다. 왜냐하면, 갯벌이 갯벌로서의 가치와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지보다는 바다와의 연계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갯벌은 갯벌로서의 독자적인 가치와 고유의 생태계를 유지해왔다.

한국 현대시에서 갯벌에 대한 논의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육당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정지용 연작시 『바다』, 박두진 『바다로 간다』 등에서 바다를 전면에 등장시킨 데 비해 갯벌은 상대적으로 창작의 소외대상이었다. 그것은 갯벌이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 놓임으로써 그 자체의 독자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재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이 빛을 결과였다. 갯벌을 본격적으로 다룬 문학작품에 대한 논의 역시 도서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본 논의와 생태문학의 차원에서 다룬 논의 정도에 불과하다.<sup>11)</sup>

10) 조경만, 『갯벌과 인간 생활에 대한 개념화 현상 고찰』, 도서문화, 제33집,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9.6. 111면.

11) 양혜림,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과학사상』, 제48호, 범양사, 2004.6. 이하석, 『갯벌,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땅』, 『Koreana Korean Vol.21, No.2 SUMMER』, 한국국제교류재단, 2007.7.

그동안 바다는 작가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녀 왔다. 바다가 육지와 더불어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절대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는 인간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절대 영역이자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했다. 바다가 시인들에게 외경과 동경의 대상으로서 양가성을 지니는 공간이라면 갯벌은 육지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면서 바닷물에 잠기게 되면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쇄된다.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가시권에서 배제된다는 의미이며, 결국 실질적인 위상 약화나 가치 상실과 맞물린다. 결국 바다에 잠긴 갯벌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짐으로써 유에서 무로 급속하게 전환되며, 그에 따른 의미 부여 역시 부정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갯벌은 인공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천혜의 조건 아래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다만, 갯벌의 성립에는 몇 가지 절대 조건이 필요하다. 갯벌의 성립을 위해서는 첫째, 바다와 인접해 있을 것, 둘째, 갯벌 형성에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 셋째, 갯벌 내에 생명체가 존재할 것, 넷째, 상시 해수의 유통이 가능할 것 다섯째, 바다에 잠기되 일정 시간 노출될 수 있는가 등이 필수적이다.<sup>12)</sup>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갯벌의 생성이나 존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갯벌은 이와 같은 기본 요건을 바탕으로 오염을 정화하는 한편 바다로부터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생명체들이 남아 있는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갯벌이 갯벌로서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들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시공간의 특성이다. 갯벌은 조류(潮流)로 운반되는 모래나 점토의 미세입자가 파도가 잔잔한 해역에 오랫동안 쌓여 생기는 평탄한 지형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은 밀물 때에는 물속에 잠기나 썰물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이 특징이며 퇴적물질이 운반되어 점점 쌓이게 된다.

이처럼 갯벌은 시간 경과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또한, 갯벌의 생성에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라는 공간적인 특수성도 필요하다. 즉, 갯벌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바다와의 인접성이 절대적인 필수 항목이다. 해안선의 출입이 심하고 긴 만(灣)이라는 지형적 특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서해안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것도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갯벌은 육지에

12) 주용기, 『새만금 갯벌은 살고 싶다』, 『환경과생명』 통권 52호, 환경과생명, 2007.6. 150면.

인접해 있지만, 바다의 환경으로부터 더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바닷물의 지속적인 순환은 갯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며, 갯벌이 고유의 속성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갯벌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바닷물의 염도 또한 견뎌내야 하므로 육지나 바다에서 사는 생물과는 그 특성이 엄연히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갯벌의 특성과 환경 변화에 주목한 몇몇 시인들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한국 현대시사에서 차지하는 갯벌의 위상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전 시인들의 시에 등장하는 갯벌이 감정 토로 차원이나 자연물 감상 차원이었다면,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인들의 갯벌 인식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이 시인들이 갯벌의 풍부한 생명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갯벌이 지닌 치유와 상생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개발에 따른 생명 파괴와 시대 각성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갯벌을 자연 관조의 대상만으로 바라보던 시각과는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인들이 주목한 갯벌의 자연 친화적, 상생과 치유, 개발 폐해에 대한 자기 성찰의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점검하고, 삶을 반추하는 데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갯벌이 지닌 내재적 생명력과 복원력, 그리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파괴행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물 이상의 의미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시에 나타나는 갯벌에 대한 고찰은 우리 삶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계기이자 우리 삶의 중요한 생활공간으로서 가치 발견이라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 논의는 앞으로 환경문제와 관련지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통한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 등으로 확산하여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2. 생명의 풍요로움 개발전

갯벌은 어민의 생활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다. 좀 더 정치하게 말하자면, 갯벌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생활공간이자 삶이 공유하는 장소이다. 바닷가에 사는 여성들

은 자신의 삶의 공간인 갯벌에서 경제 기반을 다지며 생활의 자립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주로 공동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여성들은 공동의 협업과정에서 다른 이와의 정보 교류를 이루는 한편 활발한 소통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육지와 달리 활동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여성들에게 갯벌은 부부생활과정이나 육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살면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갯벌은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보장하는 공간인 동시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바다와 달리 갯벌은 안정적이며 자신들의 생활 근거지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어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이처럼 바다가 남성의 주된 생활터전이라면 갯벌은 여성의 몫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여성들은 바닷가에 정착해 살면서 자연 친화적인 삶에 동조하고, 자연의 진리에 경청하고 순응하는 삶을 배운다. 우리 사회의 상대적인 약자였던 여성들이 다른 공간과 달리 갯벌에서만큼은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삶의 활력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황량하고 밋밋해 보이는 이 거무튀튀한 공간은 실제로는 생명의 보고이자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든든한 삶의 밑천이다. 이 경계의 공간은 섬이나 바닷가에 속한 여성들에게 어린 자식을 키우는 든든한 텃밭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몫을 톡톡히 해냈다.

우리 문학에서 갯벌 자체가 본격적인 창작의 대상이 되었던 경우는 흔치 않다. 작가 입장에서는 계절마다 풍요로움을 제시하는 육지나 눈이 시리게 푸른 바다와 달리 갯벌에까지 시선을 두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갯벌은 간혹 제 가치를 인정해 주는 눈 밝은 이들에게 주목받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시인 복효근은 갯벌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신산한 삶을 통해 자연과 일체를 이룬 ‘오체투지’의 실체를 발견한다.

얼음 서걱이는 갯벌에 한사코 고개를 처박아대는 물새의

13) 함한희, 『생태계의 위기와 여성어민들』, 『환경사회학연구 ECO』통권 7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12. 164면.

저 고갯짓이 실상은 먹이에 대한 경배라는 것을,  
가슴까지 닿는 노란 물장화를 신고 겨울 빨밭에서 바지락 캐는 여인네들의  
저 몸짓이 실은 먹이를 위한 오체투지라는 것을,

- 복효근, 『먹이에 대하여』 부분

시인 복효근은 ‘얼음 서걱이는 갯벌’에 고개를 쳐박아대는 물새의 몸짓에서 ‘먹이에 대한 경배’를 떠올린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삶의 고달픔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시인의 시선에 잡힌 물새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경배’의 영역, 즉 삶의 숭고한 실체를 감지하게 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한겨울, 남들이 외면하는 겨울 빨밭을 자기 삶의 바탕으로 삼아야 하는 여인네들의 냉혹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인은 물새의 고갯짓과 여인네들의 몸짓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고달픈 숙명을 넘어서는 숭고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다. 시인은 물새의 고갯짓에서, 바지락을 캐는 여인네들의 몸짓에서 오체투지, 즉 온몸을 다 던져야만 비로소 얻어지는 우리 삶의 진실을 간파해 내는 것이다. 이로써 한겨울에 ‘먹이’를 얻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물새의 고갯짓과 바지락 캐는 여인네들의 몸짓은 우리에게 살아 있음의 의미와 소중함을 반추하게 한다.

복효근이 갯벌과 일체가 됨으로써 얻어지는 숭고함에 주목한 반면 시인 박영근은 동진강 갯벌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생명의 환호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 환호성은 살아 있음의 환희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게 참게 능쟁이는 볼볼볼 춤을 추고  
드난살이 말뚝망둥어는 알을 슬고,  
먼 개를 지나 송어새끼들은 너울을 타고 솟구쳐 오고 있을 것이다  
빨밭 깊은 곳에서는  
백합이 숨 쉬는 소리  
한 숨  
한 숨  
살이 오르는 소리

- 박영근, 『물 때』 부분

시인이 감지한 거대한 흐름의 실체는 갯벌을 배경으로 농계, 참계, 능쟁이들이 춤을 추고, 송어새끼들을 솟구치게 만드는 힘이다. ‘농계’, ‘참계’, ‘능쟁이’, ‘말뚝망둥어’, ‘송어새끼’, ‘백합’으로 이어지는 생물체의 강인한 생명력과 흥겨움은 갯벌을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시인은 갯벌 곳곳에서 느껴지는 도도한 생명의 숨결 앞에 환호하며, 그 생명력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갯벌은 “갯물에 젖어버린 삭신이 조생이 한 자루로 빨발을 밀고 가던/홀몸 조개미 아집”(박영근, 『해창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힘을 주기도 했던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결국 생명력이 넘치는 갯벌은 바닷가의 어민만이 아니라 시인에게도 고단한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와 달리 서정주의 시 『沈香』은 갯벌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sup>14)</sup>

沈香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가다가 바로 따악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굼직굼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잠귀 넣어둡니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빼게어 쓰는 겁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3백년은 水低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롯한다 합니다. 천 년쯤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습시요. 그러니,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내다가 육수와 조류가 습수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딸이나 손자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들을 위해섭니다.

- 서정주, 『沈香』 부분

서정주의 시 ‘침향’은 몇 가지 의미를 시사한다. 첫째, 제대로 된 침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짧아도 2~3백년”이나 ‘천 년쯤’ 된 침향은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시간의 경과가 빚어내는 위대한 결과물이다. 이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로우며 유지하는 가운데 가능하다. 둘째, 침향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조들의 후대에 대한 배려이다. 그들이 침향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들이 아니라 “훨씬 더 먼 미래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이다.

14) 서재철, 『갯벌에 향나무 묻으며 환경사랑 다져』, 『월간말』, 2000.3.

이처럼 후손을 위한 배려는 그들의 삶만이 아니라 후손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였다. 셋째, 침향을 침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특수한 자연환경이다. 외부에 차단된 채 “水低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제대로 향내가 난다는 이야기는 참나무의 고유 성분과 갯벌의 특수한 환경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기계 장치나 인위적인 조작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저 나무가 물에 잠겨 있는 천연 상태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물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연 친화적인 ‘침향’은 시간의 힘과 조화로운 균형이 빚어낸 위대한 결과물에 해당한다.<sup>15)</sup>

즉, ‘침향’은 후손에 대한 선대의 배려와 굴곡 많은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기적이다. 치열한 속도 논리에 내몰리는 현대인들로서는 “아무리 짧아도 2~3백년” 뒤에 올 후대를 생각하며 참나무 토막을 갯벌에 담그는 자체가 호사로운 행위이며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행위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당장 눈앞의 자기 이익이 없을지라도 언젠가 그 혜택을 볼 후손을 가늠하며 그 일을 기꺼이 감내했다. 서정주가 고향 언저리에서 발견해 낸 ‘침향’은 그런 애타한 마음을 담은 선조들과 이를 올곧게 이해하는 후대의 교감이 빚어낸 선물이다.

### 3. 상생과 치유의 교호작용

갯벌은 수평과 수직의 공간이 내밀하게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한다. 수평의 개념으로서 갯벌은 육지와 바다의 연계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가시권 내에 존재하는 특성을 가진다. 갯벌은 바다와 인접한 수평을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간다. 인간의 시선이 닿는 곳이면 어디나 수평이 존재한다. 바다와 잇닿은 수평은 갯벌의 세계를 넓혀주는 근원적인 힘의 원천이다. 이 수평의 논리 앞에서 갯벌은 그 영역을 확보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갯벌의 수평이 가시권을 기반으로 한다면 수직의 공간은 치열한 생명력을 토대로

15) 장창영, 『서정주 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02, 209~210면 참조.

한다. 일반적으로 갯벌은 지상에 노출된 지표와 지표 이하의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생명체를 기반으로 한다면 그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갯벌이 공유하는 수직의 개념이 지상만이 아닌 땅밑, 즉 지하세계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땅밑 세계와 달리 갯벌의 지하세계는 단단함과 함께 유연성을 동시에 내포한 세계이다. 그 유연성을 바탕으로 갯벌은 수직의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갯벌에 사는 생명체들이 성장과 번식을 가능하게 한다.

갯벌이 육지와 달리 그 자체로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깊이의 높낮이 때문만은 아니다. 바로 갯벌이 생명체를 내재한 수직의 공간 미학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갯벌은 수평과 수직의 공간 안에 사는 생명력을 보듬고 번식시키며 유지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들 중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은 대부분 지표 이하이며, 갯벌에 사는 생명체들은 갯벌 지하에 살면서 평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시인 함민복은 한국 현대시사에서 갯벌의 무궁한 잠재 가능성에 주목한 몇 안 되는 시인이다. 그는 갯벌에서 부드러운 힘이 갖는 위대함과 도발적인 역설의 미학을 발견해 낸다. 그가 갯벌에서 발견한 것은 원시적인 생명력, 그 생명력의 이면에 존재하는 부드러움이 빚어내는 강인함과 살아 있음에 대한 경탄이다.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을 지칭하는 ‘밭’이나 표준어 ‘펼’이 푸근한 느낌을 주는 것과 달리 경음 ‘뺨’은 좀 더 원색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제공한다. 함민복은 원색적이고 생경한 냄새가 폴폴 풍기는 ‘뺨’의 한켠을 점령하고 있는 무수한 구멍과 그 구멍을 속속들이 채우고 있는 생명체에 주목한다.

부드러움 속엔 집들이 참 많기도 하지  
 집들이 다 구멍이네  
 구멍에서 태어난 물들  
 모여 만든 집들도 다 구멍이네  
 딱딱한 모시조개 구멍 옆 게 구멍 낙지 구멍  
 갯지렁이 구멍 그 옆에도 또 구멍구멍구멍  
 딱딱한 놈들도 부드러운 놈들도  
 제 몸보다 높은 곳에 집을 지은 놈 하나 없네

- 함민복, 「뺨밭」 부분

그가 갯벌에서 주목한 것은 “딱딱한 놈들도 부드러운 놈들도/제 몸보다 높은 곳에 집을 지은 놈”(『빨밭』)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파트와 고층빌딩을 비롯하여 ‘수직’을 전면에 앞세우는 고도 논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갯벌처럼 낮은 곳을 향하는 수평의 미학은 그래서 더 신선하게 다가온다. 시인이 발견해 낸 수평의 논리는 수직을 기반으로 하는 갯벌의 보편적인 진리를 초월한다. ‘더 높이’를 외치는 인간들에 비해 자신보다 낮은 곳에 머무는 검허와 온유 앞에서 시인은 갯벌을 지탱해 온 공존의 질서를 깨닫는다. 이처럼 갯벌은 사상과 경제의 양극화로 차단고 있는 우리에게 상처 치유와 공존의 진정한 의미를 각인시켜 준다.

갯벌의 구멍을 집으로 삼으면서 번식해가는 생명체와 달리 인간들은 갯벌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인간과 갯벌은 쌍방향이라기보다는 모시조개나 게, 해삼, 개불 같은 생물 등을 채취하는 일방적인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기 어려웠다. 심지어 갯벌은 인간에 의해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하여 육지로 변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갯벌은 인간들의 무례함을 타박하지 않고, 자신을 도륙하는 이나 찾아드는 이들 모두에게 자신의 일부를, 때로 전부를 기꺼이 내어 주었다. 이처럼 포용과 인내, 관용과 배움이야말로 갯벌 내면에 자리한 부드러움의 위력이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갯벌의 위대함이 아닐 수 없다. 이 넉넉함은 갯벌을 상생과 치유의 대상으로 전환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시인 정양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갯벌의 자연 치유 능력을 깨닫는다.

어금니 갈아 끼우는 동안  
한 달 가까이 조개 속살을 먹고 살았다  
이 세상에는 무슨 조개들이 그리 많은지  
노랑조개나 모시조개, 꼬막이나 생합이나 바지락말고도  
이름 모를 버라벌 조개들을 먹는 김에 다 먹어 보았다  
초장에 찍어 날것으로도 먹고 구워도 먹고  
쌀과 녹두를 섞어 죽을 쑤어 먹기도 했다

그 중 제일로 많이 먹은 게

혼하고 값싸고 맛있는 바지락이다  
 먹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삼시세끼 조갯살만 먹고  
 한 일주일 지나면서부터는 트림을 하거나  
 방구가 나올 때마다 회한하게도 그 속에서  
 매콤시큼한 갯벌냄새가 나곤 했다

- 정양, 「갯벌냄새」 부분

갯벌에 무심하던 시인이 갯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금니’ 교체 사건이다. 그는 뜻하지 않게 이 치료를 하면서 다른 음식을 먹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이 기간은 그에게 고통이 아니라 갯벌의 수혜를 체험했던 축복 받은 시간이었다. 정양은 “잡아도 잡아도 혼전만전 잡히는 갯벌의 그 바지락이/아닌게 아니라 오장을 윤택하게 하고 눈도 밝아지고/정력에도 좋고 술독 푸는 데도 그만이라고” 읊조린다.

그가 접한 갯벌 특유의 생명 치유능력은 아프기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경험이다. 그는 갯벌의 부산물인 조개에 의존해, 한 달을 살면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자연의 놀라운 생명 치유 능력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바다의 생명력에 의존해 살아온 한 달이라는 시간은 평생을 육지의 삶에 길든 시인이 또 다른 생명력의 원천인 바다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최소의 시간이다. 한 달 가까이 ‘삼시세끼’ 조갯살을 먹으면서 그는 자연 생태계의 군림자이자 포식자의 특권을 내려놓는다.

시인은 한 달 가까이 조개 속살을 먹으며 자신이 갯벌을 닮아가다가 마침내 갯벌이 되는 꿈을 꾸다. 단군신화의 웅녀가 인간이 되기 위해 백일의 고통을 감내했듯이, 어쩌면 고문일 수도 있는 그 반복 행위 속에서 시인은 희열을 느끼고, 마침내 자신이 갯벌의 일부가 되었음을 감지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방귀에서 ‘매콤시큼한 갯벌냄새’를 동일시하는 독특한 체험을 맛보기도 한다. 시인은 나온 이후에도 추억을 안고 “변산반도 그 옆구리에 있는/사람들 바글바글 모여드는 바지락집을/시도 때도 없이 자주 찾아가곤 하지만/그 정도로는 트림을 해도 똥을 누어도/정다운 갯벌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그가 정작 그리워하는 건 그가 조개와 함께 보낸 한 달이 아니라 바다에 근원을 둔 갯벌의 영원한 생명력이다. 그가 바다의 일부가 됨으로써 맛볼 수 있었던

그 농밀한 내적 경험은 갯벌의 부산물을 통해 얻은 선물이자 이미 그의 몸속 구석구석에 스며든 대자연의 수혜이다. 이 시에서 나타나듯이, 정양 시인은 ‘갯벌’의 부산물인 조개를 통해 자연과의 교감을 이루며, 생명 복원력이 주는 신비한 자기 체험을 갯벌에 대한 그리움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4. 갯벌, 보전과 개발의 양가성

갯벌은 생명체들의 혼돈과 무질서의 공간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질서해 보이는 이 혼돈은 갯벌 내에서는 나름대로 정연한 질서와 특유의 생존전략을 갖고 있다. 표면적으로 무질서처럼 보이지만 갯벌에 존재하는 질서는 다른 세계와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갯벌에 존재하는 개개의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갯벌에 사는 각기 다른 생물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길을 택한다. 갯벌은 그들에게 경쟁이 아닌 공존의 공간이며, 생존의 터전이다. 즉, 갯벌 내에 일방적인 종속과 지배가 아닌 공존과 공생의 논리가 갯벌의 생태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갯벌에 경제개념을 기반으로 한 개발논리가 개입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개발논리에서 본다면, 더딘 속도와 정체를 대변하는 갯벌은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만약 개발을 통해 갯벌을 고부가가치의 땅, 즉 토지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 논리에서는 간척지나 개간지의 전환이 유리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갯벌은 바다로 향하기 위한 인간들이 직면하는 첫 번째 장애물이다. 인간은 바다를 통해 다른 세계로 나가기 위해 해안으로 향하지만 갯벌은 그 통로를 제한하거나 차단해버린다. 그런 점에서 갯벌은 인간들의 희망과 미래 지향을 단절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 장애는 인간에게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자극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인간들은 이 극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몸부림친다.

인식을 전환한다면 갯벌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공간이다.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내세워 공존과 상생을 택하는 대신 눈앞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발 논리를 선택해왔다. 자연에 개발의 논리가 개입하면 자연 본래의 속성은 왜곡되고, 본래의 가치와 고유 특질이 철저히 파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정권에서 간척지와 개간 산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곳이 바로 갯벌이다.

갯벌은 개발 논리를 앞세운 정부 개간 산업의 실제 대상인 동시에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공간이다. 항상 부족했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농토 문제는 권력자로서는 간과하기 쉽지 않았던 엄연한 현실이었다. 결국, 한정된 육지의 농토에 절망했던 권력자들은 육지와 연계한 서해안의 갯벌로 시야를 돌렸다. 서해안의 간척사업이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풍족한 식량 산출을 독려하기 위한 직접적이고도 최적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해안 지역에서 갯벌의 대대적인 축소와 갯벌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갯벌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주변에 의해 지속해서 위협당하는 불안한 상태이다. 끊임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육지와 거친 바다에 의해 갯벌의 존재 자체는 항상 위협받는다. 태생적으로 갯벌은 끊임없이 바다에 의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 자연에는 투쟁이 존재하지만, 이것 또한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한 질서의 일부이다. 개체와 종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는 도태를 통해 엄격한 질서를 지닌 조화로운 체계로 형성되었다.<sup>16)</sup> 인간도 자연의 질서에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갯벌 지형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갯벌에 정착할 수 없다. 결국, 인간은 갯벌 앞에서 영원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신세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생태계 교란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새만금처럼 대규모 방조제 건설로 발생하는 갯벌의 소멸이다. 갯벌은 육지의 온갖 오염물질들이 정화되는 부패를 이용한 재생의 공간이다.<sup>17)</sup> 이는 갯벌이 자연에서

16) 양혜림,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과학사상』 제48호, 범양사, 2004. 6. 91면.

17) 박정근, 『독일 생태 시인과 박영근 생태시 비교』, 『한민족문화연구』 35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년, 106면.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갯벌의 황폐화는 이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시화호를 연상시키는 ‘시화택’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박성우는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는 개발 실태를 비판한다.

서해 파도에 질척한 갯벌을 담그고 있던 시화택  
전 임신한 여자예요, 불문곡직하고  
입부터 틀어막던 사내들이 줄지어 기어올랐네  
조갯살 하나 없이 까발려진 음부, 벌렁  
나자빠진 시화택은 처음이자 마지막 유산을 했네  
사내들은 헐거워진 자궁에 자갈과 흙을 채워 넣었네  
비릿한 소문이 갯마을 밖으로 나돌았지만  
시화택을 매장한 사내들은 유유히 사라졌네

- 박성우, 『갯벌 이야기』 부분

『갯벌이야기』에서 사내들이 여성의 자궁에 자갈과 흙을 채워 넣는 행위는 생산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행위이다. 사내들의 무자비한 행위는 ‘임신’이라는 숭고한 의미를 철저히 훼손한다. 이 무지막지한 행위는 ‘임신한 여자’라는 항변을 무시한 채 현재의 생산능력과 미래에 탄생할 생명까지를 송두리째 말살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즉,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자비하고 도발적인 행위들이 앞으로 양산할 무수한 생명 상실의 터전을 훼손하는 악행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시화택의 ‘헐거워진 자궁’은 사내들의 횡포에 의해 더 이상의 생산능력을 상실한 거세된 자궁으로 전락한다. 결국, 폭력 앞에 생산의 성지이던 자궁은 폐쇄되고, 시화택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폭행은 오늘날 개발의 이름으로 폭넓게 진행되는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끔찍한 폭행이 시화택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입부터 틀어막던 사내’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듯이, 개발 역시 남은 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유유히 사라진 사내들처럼 막대한 수익을 챙긴 개발자들과 달리 갯벌에 남겨진 것은 더 이상의 치유와 생산능력을 상실한 피해함이며 갯벌과 더불어 살던 이들의 공허한 외침뿐이다.

한반도 전체를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게 하였던 새만금 방조제에 대해 시인 박남준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싱싱한 것들로 온통 번쩍이는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저 소중한 선물의 빨발  
 살아서 아름답게 흘러 온 것들 흐르는 대로 두어야 하듯  
 밀물과 썰물로 들고 나는 빨발의 바닷길을 막아서는 아니 되네  
 이 땅에 내린 축복의 빨발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네  
 - 박남준, 「저주가 있으리라」 부분

그의 날카롭게 직시한 것처럼 갯벌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전용물이 아니다.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갯벌은 앞으로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 아이들이 함께 가야 할 또다른 세계이자 터전이다. 그가 다른 시에서 “무릎꿇지 않으면 귀기울이지 않으면”(「누가 저 바다에 금을 긋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다고 했듯이, 우리는 개발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앞에 생생하게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만 한다. 무분별한 개발이 우리와 후손 모두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갯벌의 개발논리 이면에 자리한 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박남준의 “이 땅에 내린 축복의 빨발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네”라는 고해성사는 ‘자본’과 ‘개발’이라는 환상 앞에 현혹되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이 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갯벌에서 시작한 우리 삶과 본질에 대한 시인들의 투철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 5. 나오는 말

갯벌은 한국 자연 생태계의 중요한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이나 강, 바다 등과 다르게 한국 현대시문학사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몇몇 시인들의 시작품은 이전의 관조적이고 감상 차원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깃벌의 실체를 고민하고 상생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시에서는 풍요로운 생명성에 주목한 자연 친화적인 속성, 수직과 수평의 생명력을 기반을 두는 상생과 치유의 속성, 개발 논리에 희생되고 황폐화한 깃벌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인들은 깃벌을 다룬 시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연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내면 목소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전의 감상 차원에서 깃벌을 다룬 시편들과 달리 시인들의 깃벌에 대한 국면 전환과 시적 형상화 방식의 다양성은 자연 생태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현대시사에서는 깃벌에 대한 논의 자체가 미흡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깃벌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연과 상생과 공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익히는 것만이 우리와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깃벌과 관련한 시작품에 대한 고찰은 자연과의 공생이 갖는 의의와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주제어 : 주제어: 깃벌, 생태, 자연 친화, 상생, 치유, 복원, 개발

### 〈참고문헌〉

- 고철환, 『한국 갯벌의 특징과 갯벌에 사는 생물들』, 『Koreana Korean』 Vol.21, No.2 SUMMER, 한국국제교류재단, 2007.7.
- 김중대, 『서해안과 남해안지방 도깨비신앙의 전승양상과 그 변화』, 『한국민속학』 56집, 한국민속학회, 2012.11.
- 김준, 『관광 콘텐츠로서 어촌의 문화자원 연구』, 『도서문화』 28,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06.12.
- 나승만, 『중도 갯벌어로의 민속적 고찰』, 『도서문화』 28집,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2006.
- 노용무, 『빨의 상상력과 근대성에 대한 사유-함민복의 『빨에 말뚝 박는 법』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 박정근, 『독일 생태 시인과 박정근 생태시 비교』, 『한민족문화연구』 35집, 한민족문화학회, 2010.
- 양해림,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과학사상』, 제48호, 범양사, 2004.6.
- 임영천, 『한국 생태소설 연구-조현용의 한 증편소설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18집, 한국비평문학회, 2004.6.
- 장창영, 『서정주 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2002.
- 정미영, 『내포제 소리의 문화관광 콘텐츠화 방안』, 『한국학연구』 39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 조경만, 『갯벌과 인간 생활에 대한 개념화 현상 고찰』, 『도서문화』 33집,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09.6.
- 주용기, 『새만금 갯벌은 살고 싶다』, 『환경과생명』 통권 52호, 환경과생명, 2007.6.
- 함한희, 『생태계의 위기와 여성어민들』,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7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12.

[Abstract]

## The ecology geomorphology of the mud flat shown up in the Korean modern poem

Jang, Chang-young

This research handles the space recognition aspect about the mud flat of the Korean modern poem and unfolding method. So far, in the modern premiere, the discussion on the mud flat was restrictive. It had been being sketchily progressed. If the mud flat sees from the bionomics aspect, it is the very important object. However, the mud flat embraces the blind spot which relatively the discussion was not nearly comprised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natural object.

In the eagle, the awareness of the approvals about the mud flat was naturally classified into the view, win-win and healing point of view, and stork about the damage from development point of view and it grasped. As shown in 「aloeswood」 of Seo Jeongju, the harmonization of the subject of nature which the foreshore carries and attribute looks back on the origin of the life to us. In addition, the primitive vitality of the mud flat and restoring force contemplates the meaning which the win-win and healing has for the hard-hearted peoples. As shown in ham minbok and jeon gyang, this energy checks the reason for living a life to us used to the development competition and speed logic with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Finally, there is the approval paid attention to the situation progressed in the extreme opposition of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It which the deep insight gives Bak yeonggeun, Bak namjun, and Bak seongwoo provides the power watching our future in the win-win view of the subject of nature in general.

The eagle looking into the aspect of the mud flat shown up in the Korean modern poem can prompt the discussion which is active in the various side abouts the mud flat. It will contribute in extending the vista of the Korean modern poem which the naked bud was put at the blind spot of the discussion about the mud flat so far. Besides, the potential resources which the mud flat carries is utilized and it can link with the spot of education. If the theory and field learning is gone side by side to the students and it links with the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cological education, the meaningful effectiveness of education will be able to be expected.

【Key words】 : mud flat, ecology, nature friendly, win-win, healing, restoration, developed.

---

---

장창영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jusine@empas.com

---

---

이 논문은 2014년 1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3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